EU 집행위, 공연예술가들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제의 고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내시장 및 서비스 담당 찰리 맥크리비 위원이 최근 연설을 통해 유럽의 공연예술가들을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을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의 음원 보호기간은 50년밖에 되지 않아 뮤지션들의 일생동안 존속되지 못하고 그들이 정년을 맞이할 때쯤 저작권이 만료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맥크리비 위원은 음원의 보호기간을 95년으로 연장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유럽의 공연예술가들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레코드 회사들은 각 레코드사에 소속되어 있는 세션 뮤지션(session musician)들을 위해 레코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여축해둘 것과 "use it or lose it" 규정을 도입해 해당 음원을 처음 녹음한 레코드사가 더 이상 그 앨범을 내는 것에 관심이 없을 경우 뮤지션들이 다른 레코드사로 이동하여 앨범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검토하여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집행위원회는 저작권세 부과(copyright levy)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 접수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4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 IPR Helpdesk 2008. 2. 19

EU, 2007 유럽혁신스코어보드 공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기업산업연구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dustry)이 최근 2007 유럽혁신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07)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각각의 EU 회원국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혁신 활동을 5개 분야(혁신주도, 지식창조, 혁신 및 창업, 응용, 지식재산) 25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혁신활동의 경향과 혁신의 효율성 등을 평가했다.

기업산업연구총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국을 혁신주도국(innovation leader), 혁신추종국(innovation follower), 온건혁신국(moderate innovator), 후발국(catch-up countries)으로 분류했다.

출처 : IPR Helpdesk 2008. 2. 18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